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로 · 취업 프로그램 요구사항

- 대학생들이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학문적 흥미와 적성(58.8%)이 가장 높았고, 취업의 용이성(33.4%)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3.5%는 국내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비율도 22.5%나 됨.
- 현재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스펙) 준비가 부족(27.6%)하다는 것임.
- 대학생들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39.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전공 관련 진로 프로그램(37.2%), 취업지원센터(경력개발센터 등) 서비스 확대(29.3%) 등을 요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반의 청년 실업 문제, 대학생과 부모들의 취업 준비 사교육 비용 문제 및 미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이 신입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하였으며, 저성장 경제 기조로 취업이 어려워져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이 증가함.
- 대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분석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요구 조사」 자료

- 분석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2017)』에서 실시한 「대학생 요구 조사」 자료
- 분석 대상 : Access Panel에서 표집한 대학생 총 897명¹⁾
 - 성별로는 남자 407명(45.4%), 여자 490명(54.6%)이고, 학년별로는 저학년(1 · 2학년)이 421명(46.9%), 고학년(3 · 4학년 이상)이 476명(53.1%)임.

02 졸업 후 진로와 취업 정보 취득 및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취업 준비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자격(스펙) 준비 부족임.

- 대학생들이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학문적 흥미와 적성(58.8%)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성적에 맞춰서(35.0%), 취업의 용이성(33.4%), 자기발전 추구(17.3%), 지인의 권유(13.0%), 졸업 후 높은 수입 및 사회적 지위 보장(12.5%), 담임 선생님의 추천(5.7%), 사회에 헌신하는 보람(5.5%),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5.1%) 순임.
 -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는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함.

각주

1) Access Panel은 연령과 성별로만 알 수 있는데 18세부터 35세까지 보유하고 있는 패널 수인 남성 81,853명, 여성 141,903명 총 223,756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 학년 등을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함.





[그림 1] 전공 선택 요인

-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53.5%가 국내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비율도 22.5%나 됨.
 -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 때는 해외 취업과 대학원 진학, 편입과 창업, 프리랜서 등의 비율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학년이 되면 국내 취업을 원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졸업 후 희망 진로

(단위: %)

구분	국내 취업	해외 취업	대학원 진학	편입 등 타 대학 진학	창업	프리랜서 ²⁾	아직 정하지 못함	기타	합계
전체	53.5	5.2	7.8	3.1	2.8	3.6	22.5	1.4	100
저학년	46.1	6.7	8.6	4.3	3.1	4.5	24.9	1.9	100
고학년	60.1	4.0	7.1	2.1	2.5	2.7	20.4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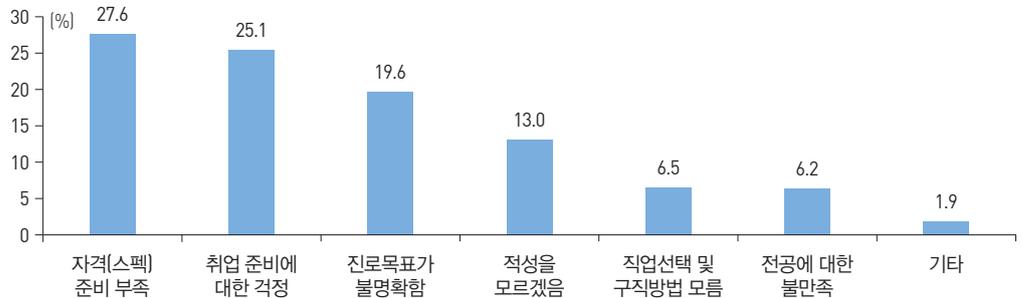
| 각주 |

2) 예: 여행작가, 번역가, 만화가 등

| 주 |

$\chi^2=20.57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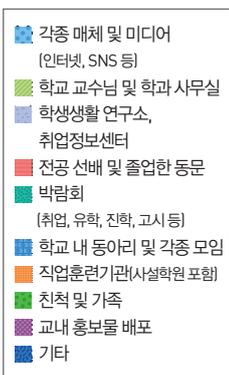
- 대학생들이 현재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은 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스펙) 준비의 부족(27.6%)이며, 그 다음으로 취업 준비에 대한 걱정(25.1%), 진로목표가 불명확함(19.6%), 적성을 모르겠음(13.0%),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을 모름(6.5%), 전공에 대한 불만족(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취업에 대한 고민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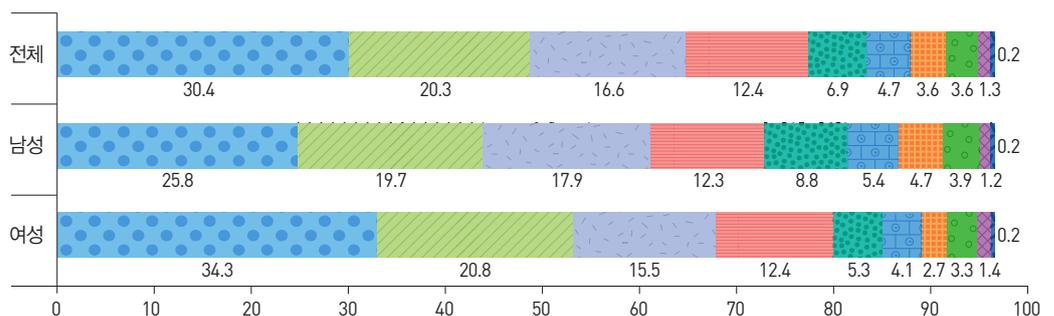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취업 지원 활동의 주요 만족 요인은 정보 및 경험 제공임.

- 대학생의 주요 진로·취업 정보원은 각종 매체 및 미디어(인터넷, SNS 등)가 3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교 교수님 및 학과 사무실(20.3%), 학생생활연구소·취업정보센터(16.6%), 전공 선배 및 졸업한 동문(12.4%) 등의 순임.



| 주 |

$\chi^2=-1.746^*$, $*: p<0.1$



[그림 3] 대학생의 주요 진로·취업 정보 출처

(%)

-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프로그램 및 활동이 진로설계와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보 및 경험 제공(41.2%)을 가장 많이 꼽음.
- 학년별로는 고학년의 경우 정보 및 경험 제공(44.3%), 향후 취업, 인턴, 현장 실습 등과의 연계(18.4%), 교수진의 전문성(9.2%) 등에서 저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임. 저학년은 프로그램 내용(20.7%), 다양한 진로탐색 경험(7.8%), 진로에 대한 상담 제공(7.3%) 등에서 고학년보다 비율이 높음.
- 고학년은 취업 및 사회 진입 전 필요한 현장 중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주 | $\chi^2 = -12.574^*$,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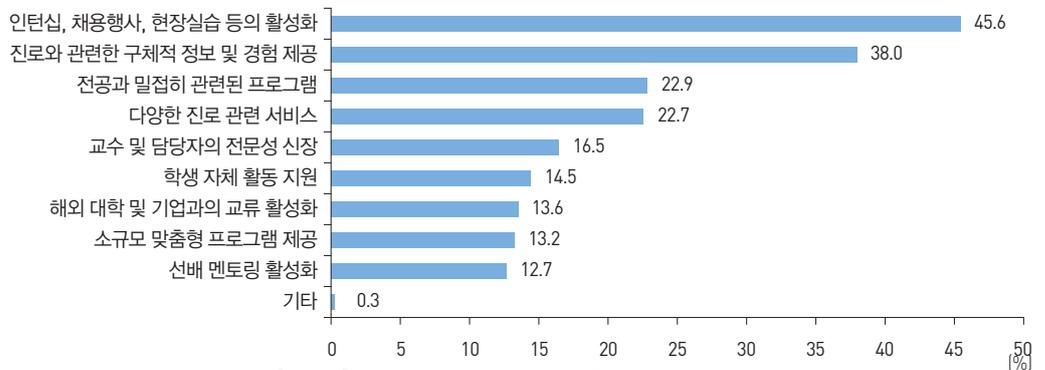
[그림 4] 대학의 진로·취업 프로그램이 진로설계 및 탐색에 도움이 된 이유

03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요구 사항

대학생들은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에 대한 개선점으로 인턴십·채용행사·현장실습 등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음.

-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으로 인턴십, 채용행사, 현장실습 등의 활성화(45.6%)를 가장 많이 꼽음.

주 | 중복 응답



[그림 5] 진로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개선점

- 진로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기에 대해서는 1학년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대학생이 37.1%로 가장 많고, 2학년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33.8%)이 그 다음으로 많음.
- 저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약 70%를 넘은 것으로 보아 신입생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표 2] 대학생의 진로수업 및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기

구분	연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참여하고 싶지 않음	
전체	37.1	33.8	19.0	3.0	7.1	100
저학년	36.8	30.9	23.0	1.2	8.1	100
고학년	37.4	36.3	15.3	4.6	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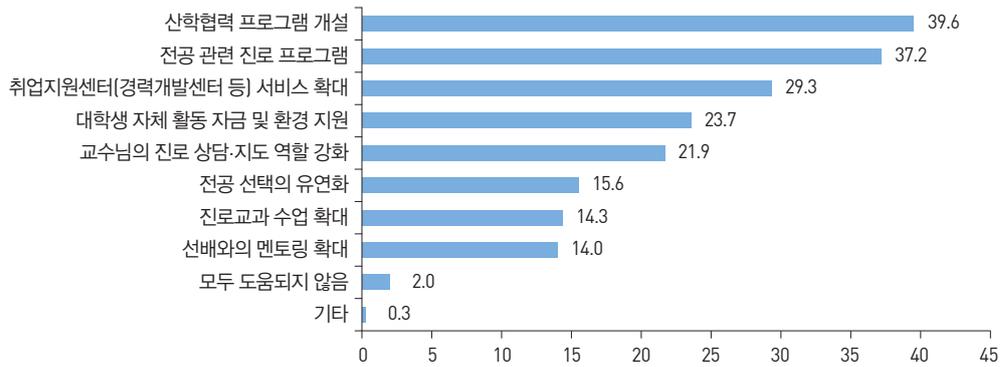
주 | $\chi^2 = 0.877$

- 희망하는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형태는 교양선택(37.5%), 교양필수(23.6%), 전공필수(17.9%), 전공선택(16.9%), 개설이 필요치 않음(4.0%) 순으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을 희망함.

대학생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 방안은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이며, 현장실습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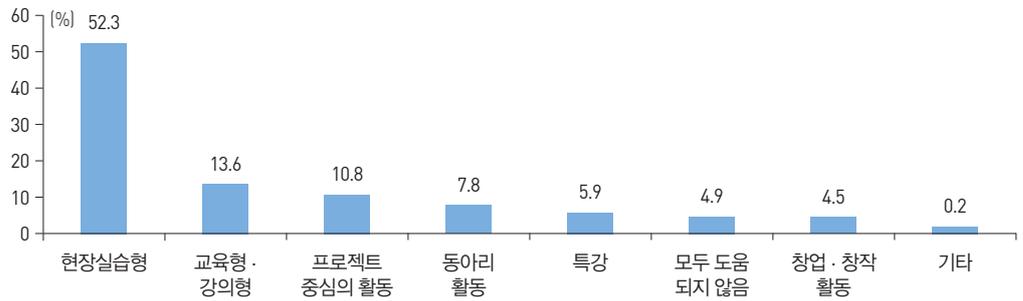
- 대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은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39.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공 관련 진로 프로그램(37.2%), 취업지원센터(경력개발센터 등) 서비스 확대(29.3%), 대학생 자체 활동 자금 및 환경 지원(23.7%), 교수님의 진로 상담 및 지도 역할 강화(21.9%), 전공 선택의 유연화(15.6%), 진로교과 수업 확대(14.3%), 선배와의 멘토링 확대(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
중복 응답



[그림 6] 대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현장실습형(52.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형·강의형(13.6%),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10.8%), 동아리 활동(7.8%), 특강(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대학생이 선호하는 진로교육 방식(1순위)

04 시사점

-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이 겉핥기식의 행사 위주(37.2%), 정보 및 경험 제공 부족(20.1%), 향후 취업, 인턴, 현장 실습 등과의 연계 부족(16.5%) 등의 이유로 대학생의 취업을 제고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대학교가 제공하는 취업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취업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은 1학년부터 교양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하되 학생의 진로개발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함.
 - 졸업 후 진로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음.
 - 저학년에서는 진로탐색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학년에서는 현장 중심의 직무를 배울 수 있는 인턴십과 취업 관련 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대학생들은 취업을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의 실무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실습형과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과 전공 관련 진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윤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나현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임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